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제언: 잃어버린 한민족 뿌리역사의 원형을 찾아(IV) 한민족 뿌리역사의 원형은 성경 창세기에 있다 (29장-30장)



구월산 삼상사에 있는 한인, 환웅, 단군 초상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천손직계민족이라면서 또 환인(하나님)의 서자 환웅의 아들 단군민족이라면서 서자 환웅이 어찌하여 서자이며, 하나님의 직계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의 증표(齎表)로 받은 천부인 3개란 과연 무엇인지 아무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실제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동방 땅 팔 팔 모퉁이의 나라에 와서 오늘날 세계만민 앞에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직계 장손민족이요 구세주 민족이라고 외치고 있다면, 인류를 구원할 어떤 비장의 무기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수천 년을 이 땅에 조상의 뿌리를 두고 살면서 “기독교 예수를 믿으니 단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단군성조는 인정하지만 저 성경 속의 이스라엘 민족사는 우리 단군의 역사와 환인과 서자 환웅의 역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토론팀이름이나 사머니즘적 토속신앙에 빠진 사람도 있다. 또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 종교가 오래된 것이요, 오래된 것만이 진리인 양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 모든 편견을 내려놓아야 참 진리의 역사와 종교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의 역사인가? 그것은 일찍이 메시아 정도량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만물이 형상화 된 것은 그 결과를 보아 알 수 있다. 그 결과란 곧 인간과 만물이 생명이 있음에 생명의 신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생명을 가진 만물이 죽기 싫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아 사방의 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 중에 인간만이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창조력이 있으니 가히 만물의 영장이며,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 곧 단군성조의 가르침이 진리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시82:6, 신14:1, 요일3:2)”고 가르치는 성경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격양유록 도부신인편에는 우주의 비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으나, 천손민족의 비결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전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신의 경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천지상쟁(天地相爭) 혼돈시(混沌時)에 천신부이(天神負以) 지귀승(地鬼勝)을 차연유(次緣由)로 인(因)하여서 승리자(勝利者)의 높음으로 천지반복(天地反覆) 할 일 없어 지상권(地上權)을 잃었다네.”

이와 같은 역사를 감히 사방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어찌 알겠는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인간이 과학이라 하여 빅뱅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우주 대폭발이라는 말로서 수백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겨나고 또 그 후에 인간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나 결코 인간과 만물의 생겨남은 진화의 역사도 아니요 창조의 역사도 아닌 신의 변화에 의한 우주변화의 역사이다.

### 아곱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 이 환인의 서자 환웅이다

하나님의 서자 환웅의 역사와 단군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 단 지파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성경 창세기 29장-3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은 아곱의 본처 라헬이 아이를 낳게까지 낳지 못하자 본부인 라헬은 남편 아곱에게 요청하여 몸종 빌하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 자기 자식으로 양육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

하여 얻은 자식이 바로 다섯 번째 아들 '단'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사에 나타나는 혈통계승의 하나인 씨받이 제도의 원형이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 이 조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여기서 '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재판관, 역올함을 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민족사에서는 조상 서자환웅의 태생을 상세히 기록하지 못한 조상과 우리 자신의 신분을 비하하는 느낌을 숨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신의 정통성을 숨겨 마지막 때 구세주 메시아를 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유다의 후손 예수가 기독교를 통하여 종교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이 세상의 왕 노릇하고 있으나 '단지파'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출현 할 때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다. 예수의 기독교 탄생 이후 오늘날까지 그들은 '단지파'를 적그리스도 출현의 지파로 매도하고 있으나, 유다의 후손 예수가 왕의 권세를 누리듯이 마지막 때 '단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이 심판권의 축복 역시 결코 헛됨이 없을 것이다.

### 이스라엘 단지파(서자 환웅의 무리)의 이등과 고조선의 태동

오늘날까지 단지파는 성경과 이스라엘 12지파 역사에서 잃어버린 지파이지 2면 하단으로 계속

일이다. 반드시 주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길 것이다. 약 한 달 뒤 10월 3일 개천절, 본부재단에서 강연회가 있다. 꼭 한 분씩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지역 1등: 2지역(강중태, 김혜선) 2등: 4지역(박명하, 이영애) 3등: 1지역(김종만, 박경옥)
- \*구역 1등: 58구역(구역장: 윤금옥) 2등: 10구역(구역장: 김종만) 3등: 16구역(구역장: 강중태)
- \*개인 1등: 김종만 승사 2등: 안경미 권사 3등: 윤금옥 승사\*

## 2지역 꼭 2년 만에 감격의 1등



2지역 안경미 부처화장이 상을 받고 있다

났음에도 4지역이 굳건히 2등을 차지한 것은 엄청난 저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2지역과 4지역은 절기성금 목표금액 100% 달성에 참여율까지 100%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과 2점의 근소한 차이로 나란히 1, 2등을 차지하였다.

구역성적과 개인성적으로는 6지역이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윤금옥 승사의 58구역이 1등을 차지하였고 새식구 정기영씨의 인도 점수와 새식구 21일 달성 점수에 성탄절 감사헌금 점수를 합하여 김종만 승사가 개인 1등과 구역 2등을 차지하였다.

2지역의 1등에는 개인 2등을 차지한 안경미 권사와 구역 3등을 차지한 강중태

승사, 그리고 지회장 김혜선 권사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실로 2지역의 1등은 오랜만에 이룬 쾌거로,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띠게 하였다. 이번 8월 성적의 특이한 점은 1등에서 6등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1등과 2등이 2점 차이로 2등과 3등이 불과 3점차이다. 그러므로 1만m 장거리 달리기 경주에서 2, 4, 1지역의 3명의 주자가 약간 앞서서 우루루 결승선에 골인하고 바로 뒤를 이어 3,6,5지역의 3명의 주자가 우루루 결승선에 골인한 형국으로 지금까지의 성적 중 가장 박빙의 승부였다.

윤봉수 회장은 “8월은 작자를 예상했지만 흑자로 마감되었다.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신 결과다. 항상 적자 재정으로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9월 6일(화) 본부재단 8월 활동에 대한 시상 있었다. 8월 성적은 2지역이 지역 1등, 4지역이 2등, 1지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3강 지역 중 3지역과 5지역이 등외로 밀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90)

“항상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다녀라”

여러분들! 항상 각성한 가운데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다녀라. 초초로 내 주님을 바라보고 일초도 쉬지 않고 마귀를 공격할 때, 마귀는 손을 번쩍 들고 나가자빠지는 것이다.

속해서 공격을 퍼부으면 결국 케이오(K.O)가 되는 것이다.

공격은 일종의 방아다. 권투선수나 씨름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방어하기에 바빠서 공격해 올 여유가 없는 것이다. 정신을 못 차리게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으면 결국 케이오(K.O)가 되는 것이다.

영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얼마만큼 끝까지 끈기있게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마귀를 공격하고 또 공격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잠깐 열심치 움직이다가 식어버리면 마귀가 덮쳐버리는 것이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합시다!

## 구도의 길

### 부처님을 바라보아 부처가 된다

〈와칭, 신이 부리는 오솔〉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티아키스 교수가 32년간 12,000명을 추적해봤더니, 친한 친구가 똥똥하면 나도 똥똥해질 가능성이 무려 세 배나 높아졌다. 똥똥한 친구가 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느냐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지구 정반대 편인 브라질에 살든, 태양계의 저 끝 토성에 올라가 살든, 내가 그 친구 모습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주 떠올려 바라볼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몸이 똥똥해진다. 내가 끌어당겨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가 내 몸도 변화시키는 것이다(와칭, 42-43쪽, 정신세계사).

구세주께서는 “하나님(부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부처님)이 되고, 마귀를 바라보면 마귀가 된다.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대상의 영(靈)이 자신에게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부

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부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부처님)이 되고, 마귀를 바라보면 마귀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된다는 것이다.

앞의 인용 예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똥똥하면 자신도 똥똥해질 가능성이 세 배라고 하였다. 똥똥한 친구의 영이 자신 속으로 들어와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똥똥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의 영이 더 강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똥똥한 친구가 있더라도 자신의 영이 친구의 영보다 강하다면 똥똥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영의 법칙이다.

구세주의 본체는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다. 따라서 구세주를 바라보면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다. 구세주를 초초로 바라보라. 그러면 마귀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 입문수기원고 구합니다

영생의 진리를 알리는 데에는 구세주의 말씀과 입문수기의 역할이 제일 막중합니다. 자신이 이 영생의 도에 입문하여 배운 바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진도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귀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진정 뜻이 있다면 흔쾌히 입문수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경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판매처: 교보문고, 도서출판 해인(032-343-9985)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탈북 식량과 자유만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인도네시아의 무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면 파푸아뉴기니로 가서 거기도 안 되면 아마존 삼림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자  
아!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엔진고장 그리고 표류 일본열도에 흘러들어가던 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30년 만에 털어놓는 탈북 비화!!!

### 김만철 선생은

1987년 1월 김일성 공산정권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11식구를 몽땅 데리고 배로 탈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 탈북 후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과 극적인 탈북과정을 강연하면서 강연료로 받은 돈으로 남해에 평화기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모순 투성이의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더욱 의문만 생겨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승리재단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